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제3회 시민초청강연회 성공리에 끝나

서보목 강사 “환웅은 야곱의 장자 단이며, 단군민족의 뿌리다. 한글은 히브리어에서 왔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제3회 시민초청강연회가 본부제단 강연장에서 시작되어 약 100분간 진행되었다. 본 강연회에서 서보목 강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다음은 강연 요지이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정체성이 없다면 혼이 없는 존재가 된다. 혼이 없는 사람은 허깨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복자들은 피정복민들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노력했다. 일제가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하여 역사를 조작하고 역사책을 불태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단군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열강을 하고 있는 서보목 강사

우리 역사의 시작은 삼국유사와 한단고기에 서술되어 있는바 천손민족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서 왔다는 서술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며, 하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민족에게서 왔다고 해석해야 옳다. 그 하늘의 백성은 바로 성경상 이스라엘 민족이며,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의 후손이다. 그 근거는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에 히브리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들고 있다(여기까지는 그동안 승리제단에서 주장해 온 것과 동일하다).

재야사학자들 중 일부는 우리 민족의 기원을 한단고기와 삼성기전, 규원사화에 기록된 대로 약 10000년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척 애국적인 듯한 주장이나 좀 과장되었다고 본다. 또한 정통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기마민족 기원설은 그 이상의 뿌리를 논하지 못한 불완전한 주장이다. 강사는 이에 착안하여 과장된 역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부족한 역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성경에 의해 우리 역사의 기원과 이동과정을 설명

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단지와 민족이며, 서자 환웅은 야곱의 아들 단이라고 주장한다. 즉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의 본체(本妻)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몸종 빌하를 통해 아이를 얻고 야곱은 그 아이들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이다. - 이는 우리 민족의 씨반이 제도의 원형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풍습 중 하나이다.

한글은 히브리어에서 왔다

한글은 고전(古篆)을 모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세종실록 계해25년 12월 조). “十月上시월상, 親製言文正體언문정체문 二十八字십팔자, 其字 倣古篆기자 倣古篆기자 방고전” 여기서 옛 전자(篆字)란 고조선의 38점음 가림토와 그 이전의 전자(상형문자)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한단고기 편저자, 임승국 교수).

그런데 일본의 고어인 신대문자는 한글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가나문자와 히브리어는 음과 모양이 비슷하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민족이 현해탄을 건너가서 세운 나라들이 일본 고대 국가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동북아대륙에서 한민족과 더불어 살다가 패망한 나라들이 건너가 건설한 망명국가들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민족이라 칭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일본민족이 이스라엘 계통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써 볼 때 한글보다 먼저 창제된 히브리어에서 한글이 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영지 박사는 한글과 히브리어에서 발음의 유사한 것을 찾아 연구한 결과 아베(아버지) 이미(엄마) 등 뜻까지 같은 단어도 매우 많은 것을 밝혀냈다.

형사취수제도 동일

성경은 형사취수제도를 기록하고 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

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신명기 25:5~6)

이러한 예로서 유다의 세 아들과 다말의 결혼을 들 수 있다(창38:2~12). 유다(BC1918~)의 장남 열이 다말과 결혼한 후 아해의 눈 밖에 나서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였고, 그 후 오난도 죽자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한 후 혼인을 예정하였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의 동일한 풍습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중시한 점, 유월절과 동지 풍속, 어른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점, 흰 옷을 즐겨 입는 점, 신주단지 모시는 점, 장례풍속이 같은 점 등등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천손민족사관으로 본 단군민족의 뿌리역사와 신명시대의 도래 참조)

서보목 강사는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승리제단 설립자이신 조희성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밝혔고, 마지막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로 한민족의 깨어나기를 촉구하면서 강연회를 마쳤다.

승리제단 주최 강연회는 2004년 구세주 조희성님의 보광으로 침체된 승리제단의 부흥을 위하여 2015년 ‘괴질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시작으로, 2016년 ‘홍익대통령과 정도령’을 거쳐 올해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승리제단에서는 2017년부터 1년에 2회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2)

“인간의 감정을 이겨라”

이 사람이 완전히 ‘나’ 라는 의식을 죽이고나니가 감정이 없어졌던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은 무극의 신이요, 무아의 신이므로 감정이 없다. 감정이 죄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감정이 없는 영이요, 죄인의 영은 감정으로 가득한 영이다. 감정 자체

가 죄요, 마귀의 영이므로 감정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며 바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 인간의 감정은 양심의 의로운 길에 방해가 되는 마귀의 영이다. 그리고 로 온전히 감정을 이겨라. 감정은 어둠과 사망의 씨앗이므로 감정이 없어야 그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3지역 3개월 만에 다시 1등 개인 안명숙 승사 1등



본부제단 6월 활동 성적 발표 및 시상식 4월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3지역이 3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역 1등을 차지하였으며 4지역이 한 계단 내려앉아 2등을 차지하였고 1지역이 강세를 보이며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 성적으로는 현금과 인도, 그리고 새식구 21일 점수가 합산되어 안명숙 승사가 1등을 차지하였고 이영애 권사가 2등, 김종만 승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 성적은 21구역이 1등, 37구역이 2등, 12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6월은 새식구 3명이 21일을 수료하는 성과를 올렸다. 3지역에 양종호님과 이현규님 그리고 보광패션의 송기태님이 21일을 수료하였고 1지역의 김순식님은 7월 2일자로 21일을 수료하였다. 새식구들의 영향으로 전체 분위기가 활기 넘치는 6월이었다.

윤봉수 회장은 “영모님이 나무가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3등: 1지역(지역장: 김종만, 지회장: 박경옥)

구역

1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37구역(구역장: 이영애)
3등: 12구역(구역장: 신불선)

개인

1등: 안명숙 승사
2등: 이영애 권사
3등: 김종만 승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승리제단 성도가 물놀이 할 때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야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社告

승리신문이 활자를 키우고 편집을 확 바꿨습니다!

일부 독자들의 신문 활자를 키워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지난 7월 1일자 신문(738호)부터 편집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읽기 쉽고 보기 좋은 편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리신문과 승리제단 발행 서적 및 홈페이지를 읽고 간단한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문출판사 직원 일동